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5년 9월 7일(일) 제1555호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

9~10월 'CGN 후원의 달', 9월 20~21일 후원 및 약정 행사
홈페이지나 전화로 정기후원…일시후원, 증액후원 신청 가능

9월과 10월은 '선교 미디어 CGN 후원의 달'이다. '함께! 미디어 선교'라는 핵심 비전 아래 지난 20년을 달려온 CGN이 올해는 '당신이 무명(無名)의 선교사입니다'를 주제로 9월 20일(토)과 21일(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후원 및 약정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당일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서는 사진전과 포토 부스 등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CGN을 후원하고 싶은 성도들은 후원 및 약정 행사 당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02-796-2243), 홈페이지(cgnkorea.net)에서 참여하면 된다. 기존 후원자 증액도 가능하다. 자녀와 가족, 전도대상자 이름으로 CGN 후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CGN 후원의 달에는 정기후원 모금 방송을 방영한다. 김재원 아나운서와 개그우먼 김효진이 사회를 보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CGN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알리고, 새롭게 나아갈 비전과 사역 방향 등을 공유한다. 오랜 기간 CGN과 동역해 온 후원자와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담을 예정이다.

올해는 CGN 개국 20주년이다. 이를 기념하며 지난 6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도 호평을 얻었다. 누적 관객 수 7만 명을 돌파했다.



CGN 전진국 대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CGN이 지난 20년 동안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달려올 수 있었다"면서 "CGN이 앞으로도 미디어 선교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796-224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 나눔
'사르밧 프로젝트'

10월 19일까지 순, 개인별 헌금 및 나눔 대상자 접수

2025 사르밧 프로젝트가 9월 6일(토)부터 10월 19일(일)까지 이어진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교회 밖 이웃, 기관 등지에 나누는 뜻깊은 행사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개인은 10월 19일(일)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헌금을 각 캠퍼스 송금 계좌로 봉헌하면 된다. 헌금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6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형편에 맞게 하면 된다. 순에서 헌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일곱 자 이내로 기입해서 보내면 된다(예: 한강마리아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헌금을 송금할 때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면 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도 모집한다. 1순위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한다. 나눔 대상자 접수는 10월 19일(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서빙고: 25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의 확인을 거친 다음, 공동체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공동체 이름과 공동체 담당목사, 대표장로 승인 여부를 기록해서 보내야 한다(예: 000공동체 000 목사님과 000 대표 장로님께 승인 받음). 이메일을 보낼 때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를 참조인으로 발송해야 한다. 쌀 발송을 원하는 캠퍼스는 10월 19일(일)까지 담당자가 대상자 리스트를 취합해서 서빙고온누리교회 수신처로 접수하고, 그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면 된다. 감사의 쌀과 성경은 나눔 대상자에게 11월 3일부터 택배로 배송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대상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 간사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하반기 개강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하반기 개강을 한다. 9월 16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소그룹 모임을 한다. 온라인커뮤니티 담당 목회자와 리더들이 개인 신앙상담, 온라인 심방, 중보기도 등을 제공한다. 이번 학기에는 여성민 목사가 강의한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 홍하영 기자

2025 하비스트(Harvest) 'Renewal'

15개국 이주민, 영적 변화와 공동체 부흥 꿈꾼다

하비스트(Harvest)는 온누리M미션에서 매년 개최하는 이주민 추석 연합수련회다. 올해는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아랍,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 등 15개국 이주민들이 모인다.

2025년 하비스트(Harvest)가 10월 4일(토)부터 6일(월)까지 'Renewal'(영적 갱신, 겔 37장)을 주제로 막 오른다. 올해만의 특별함은 기존 집회처럼 불신자 전도보다는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공동체의 부흥을 꿈꾼다는 점이다.

김태완 목사(온누리M미션)는 "2025 하비스트를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소망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성도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관심, 봉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물품후원도 부탁했다. 국제문화축제 시상품, 한국전통물품, 추석선물세트, 차세대 학용품 등을 9월 30일(화)까지 온누리M센터에 도착하도록 보내면 된다.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2주년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를 9월 7일(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온누리교회 6층 본당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 축하 영상 상영,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당) 설교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창립 기념 떡도 나눠준다. 대전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살아있는 예배, 아웃리치, 행복한 가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내 3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2020년에는 세종교육관을 설립해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있다.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당)는 "대전온누리교회는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사도행전의 비전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박지혜 기자

기독교 세계관__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3면 어린이신문__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4면 전문가 기고__ 왜 결혼인가? 5면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

여호수아 7:6~21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되십시오.**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전쟁은 '여리고 정복 전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기이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주신 전략은 군사 전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략이라기보다 예배의 행진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후 곧이어 싸우는 아이 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여리고 성 전투가 기이한 승리라고 한다면, 아이 성 패배는 기이한 패배였습니다. 도무지 패배할 수 없는 패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 성으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성이 너무 작고 백성들 수도 적으니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합니다"라고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군사 3천 명이 두려워 도망했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절망, 좌절에 빠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탄했습니다.

죄는 철저히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진멸하라고 한 물건의 일부를 훔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10~12절). 하나님이 아이 성 패배를 통해 죄와 싸우시는 여호와, 죄와 전쟁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대적하십니다.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승리를 주셨던 여리고 성 전투에서 어떤 사람이 은밀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게 하신 것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실행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실행자, 도구, 대리자로 쓰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죄를 범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받는 환경을 보면서, 심판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죄를 범하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여리고가 진멸 당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인간의 구제 불능한 완악함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리고 평원에서 군사령관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원수 편이요?"라고 질문합니다. 여호수아는 "네 편이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텐데,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의 원수들을 치는 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그 대상이지만, 너희들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고, 너희들도 죄를 범하면 내가 너희를 칠 수 있다는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돼서 실행하는 이들인데,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처럼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아이 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민족, 누구라도 죄와 싸우십니다. 죄인을 대적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 이야기와 아이 성 이야기를 극명하게 대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리고 성 정복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그분이 어떻게 함께하시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아이 성 패배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대적하시는지, 어떻게 버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죄, 끝까지 추적해서 드러내신다

둘째,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드러내십니다(13~15절). 하나님이 제비뽑기 과정을 통해 죄인을 드러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대표적인 지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체가 패배하게 하는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을 삼으셨고,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 죄의 전염을 가져온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곧 전염을 일으킬 것으로 보셨습니다. 모든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동체를 통해 일어납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죄의 전염력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더욱 엄격하게 대하시고,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다루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가 열리는 때 하나님이 죄를 엄격하게 다루심으로써 그 민족과 역사를 운영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제비뽑기 기간이 회개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승리하는 그 순간에 범했던 죄를 알고 계셨고,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의 일부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물건을 왜 몰래 취했습니까? 값비싼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21절). 값비싼 은과 금을 보고 탐이 나서 가지게 된 것이고, 숨겨놓은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하나님은 이미 보셨습니다. 제비뽑기를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라합과 아간을 비교하면 정반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의 심판받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몰랐던 여인이 구원을 얻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하던 사람이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아간의 죄를 드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의 죄를 인지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에 도취해서 스며든 교만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정탐꾼들의 보고에서 나타납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은 작고, 사람도 적으니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교만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자신들의 힘으로 무너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여리고 성에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오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실패는 교만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신이 받을 영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만 교만의 죄에 빠진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한 번 더 기도하고 판단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도 교만해진 것입니다. 패배한 후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원인을 듣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 아이 성을 놓고, 여리고 성 앞에서처럼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더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이 성의 패배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된 사람들은 언제나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전쟁, 죄와의 싸움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를 해결한 이후에야 아이 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싸움으로 8장에 가서 승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죄와 전쟁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누구라도 죄를 범하면 가나안 민족과 동일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죄를 드러내도록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아이 성의 패배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때로 패배를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추적하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고, 처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패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전략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합니다. 아이 성의 패배가 약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영적 긴장감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도 싸우십니다.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대적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로 온전히 처리해야 합니다.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 묻듯이, 우리의 죄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묻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나는 너와 싸울 수밖에 없다. 나는 너를 대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너는 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저 골고다 언덕에서 여호수아가 아골 골짜기에서 아간을 파묻듯이 저 골고다 언덕에 너의 죄를 파묻어라. 그리하여 내가 너와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인간관이라 한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도 연결된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른 피조물이지만, 죄로 인해 타락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관점이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대속에 근거한 회복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이다. 이 인간관은 실정법이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연법(natural law)사상, 인간의 존엄성, 인권 사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의 노예제 폐지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인간의 죄악성을 정확히 인지해 국가 권력 시스템에서 권력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는 권력 분립 원리에도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선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덕을 수양하고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적절한 역할 수행을 하도록 교육받을 것을 강조하는 세계관은 유교적 인간관에 연결된다. 개인의 도덕 함양을 목표로 군자와 소인을 구분했다. 지도자의 덕성 함양과 군자론을 통치의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실정법의 문제나 견제와 균형에 기반한 권력 분립 원리에 대한 시각이 부족해 강압적 통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유교적 인간관은 신분제도 유지에 영향을 주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죄성에 대한 통찰이 깊지 않음을 드러낸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을 물질 내지 동물의 하나로 보는 현대의 무신론,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인간관은 어떤가? 사람이 그 자체로 고결한 존재라는 인식이 부족하며, 생명의 희생도 때에 따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반항성을 내포하고 있다. 무신론에 기반한 인간관에서는 인간 존중의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 존중, 장애인의 인권,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에 대해 기독교적 인간관과 같은 수준의 강조는 어렵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신체의 변형이라도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요즘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수용 불가한 사회의 기반인 양성에 따른 혼인, 가족제도와 충돌하는 동성애에 기반이 되는 ‘젠더주의’, ‘트랜스젠더리즘’에는 오히려 개방적이다.

여성성을 가진 남성 또는 남성성이 강한 여성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일들이다. 이들 중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에 속하기를 원하면서 자기 육체를 바꾸고자 하는 욕망을 계속 추구해 가는 이들이 있다. 이는 종래 ‘젠더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는 정신장애였으며 통상적으로 ‘트랜스젠더’라 불렀다. 그런데 성소수자 인권 운동으로 ‘젠더불쾌증’(gender dysphoria)으로 변경되었다.

이제 젠더불쾌증을 ‘정상’으로 보면서도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의료보험으로 그 비싼 성전환 수술을 해 주려 한다. 그러나 반대 성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의 장기적 부작용과 합병증은 의학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영구 불임을 초래하고, 성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며, 평생 수술 후유증에 대한 외과적 관리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트랜스젠더의(성전환의) 인권이 보장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성전환 수술 없이 법적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판결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로 모임이 차단되던 시기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에 관한 전시가 열려 깜짝 놀란 적도 있다.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읽으면 인권적 관점에서 성별의 전환을 허용하게 될 때 나타날 사회 내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거나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한다. 소위 ‘트랜스젠더리즘’(transgenderism)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남녀로 보는 기독교적 인간관과 충돌된다. 주어진 질서에 대한 순응을 중시하는 유교적 인간관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무신론적 인간관에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는 대리모, 정자 기증, 난자 기증에도 마찬가지다. 생식 기술을 폭넓게 사용해 나타나게 될 자녀의 혼란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 자녀를 잘 교육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이렇게 태어나 성장하는 이들은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태어나 자라난 이들에 비해 여러 면에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임을 보여준다.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태아의 생명 보호와 모의 선택에 대해서는 무신론적 인간관뿐만 아니라 유교적 인간관도 모의 선택권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생명의 기반이 형성된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잉태되었음을 인정하는 기독교적 인간관만이 태아의 생명권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중증 장애나 질병을 앓는 이들에 대한 안락사에 대해서도 생명 그 자체에 소중함을 인정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가장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섬김으로 나서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자녀를 출생하고, 이들을 교육하고, 연약한 이들에 대해 돌봄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은 기독교 세계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인간관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반향이 큰 이유이다.

*** 전문은 QR코드 또는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특별기고

죽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캐나다

의료계 내 돌봄 부족 현상은 의료인의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애틀랜틱〉지는 캐나다의 의사 조력자살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안락사 제도’로 묘사하며 많은 의사가 이 분야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한다. 실례로 ‘캐나다 MAiD 평가 및 제공자 협회’의 공동 창립자인 스테파니 그린 박사는 수십 년 지속해 온 산부인과 경력을 접고 조력자살 시술을 택했다. 그녀는 〈애틀랜틱〉과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모두 ‘생명에 개입하는 일’”이라고 발언했다. 일부 의료인은 수백 명의 환자에게 조력자살을 시행한 바 있으며, 그런데도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캐나다 의회는 2016년 MAiD를 합법화하면서 ‘개인의 자율성 향상’과 ‘고통 경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제도가 의료 윤리를 훼손하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사회적 약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죽음의 문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의사협회(AMA)’는 공식 성명을 통해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의사의 치유 역할과 양립할 수 없으며, 통제가 어렵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특히 캐나다와 같이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장기적으로는 생명 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재정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삶의 질’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국가들에서는 공통으로 이른바 ‘죽을 권리’가 곧 ‘죽어야 할 의무’로 인식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품위 있는 죽음’과 ‘불필요한 고통의 종식’을 약속받은 환자 중 다수는 실제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조력자살을 선택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장애법 교수 테레지아 데게너는 “장애가 있는 삶은 자동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여겨지며, 일부 경우에는 죽음이 더 나은 선택으로 간주한다”고 지적하였다.

캐나다 당국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추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뉴 아틀란티스(The New Atlantis)〉의 보도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서만 수백 건의 중대한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했는데, 단 한 건도 수사기관에 보고되지 않았다. 온타리오주 검시관 더크 하이어는 “모든 사례가 보고되며, 전례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내부 고발자들은 400건 이상의 법률 및 절차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환자가 동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조력자살이 시행된 경우 조력자살 약을 짓는 약사와의 의사소통 실패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전체 의료인 중 약 39%는 해당 약물이 조력자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약사에게 사전 알리지 않은 채 처방을 했다.

더욱 심각한 사례도 존재한다. 일부 제공자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10일의 대기 기간을 지키지 않고 약물을 조기 투여하였다. 한 사례에서는 유제니 장 박사가 잘못된 약물을 사용해 환자가 사망하지 않자 다른 약물을 다시 투여해 조력자살을 완료하였다. 하이어 검시관은 해당 사례가 명백한 법 위반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과 사망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온타리오주 조력자살 제공자의 약 4분의 1이 준수 문제로 검시관의 통보를 받았다. 연방법은 이와 같은 사례가 형사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하이어는 단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다. 대다수 문제를 단순히 ‘비공식 대화’ 수준에서 종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장 박사는 경고 이메일만 받은 채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단순히 ‘미끄러운 경사로(slippery slope)’라고 표현하는 것조차 부족하다.

MAiD는 원래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에게만 적용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치명적이지 않으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정신 질환만을 가진 환자에게도 확대될 예정이며, 미성년자에게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조력자살은 본질적으로 의료 행위가 아니다. 이는 의료 윤리를 훼손하고, 제도적 오남용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며, 공공 신뢰를 약화하는 위험한 관행이다.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타국에 대한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캐나다 내 그리스도인들이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하는지를 통해 진정한 용기를 드러내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 존 스톤스트리트, 티모시 D. 패짓

원문: breakpoint(20250521)

크리스천의 자녀 양육

내 안의 부모와 화해하는 법



장보원 성도
(일산파주공동체,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교육팀장, 〈소리로 흐르는 육아〉 저자)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흘러간다.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부모의 모든 신념과 가치관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구조이다.

이는 부모의 미해결된 감정이나 사건들이 자녀에게 되풀이되는 순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부모들은 원가정에서 느꼈던 부정적 경험, 상처, 결핍 등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지만, 시나브로 어릴 적 보고 들었던 말투와 표정을 '복붙'(복사하기+붙여넣기 줄임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 시나리오의 배우'가 된 것처럼 말이다. 이 부정적 대물림의 사슬을 끊어낼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일까?

사람은 해결되지 않은 시간에 머물게 된다. 과거를 잊고 묻어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과거를 잊고 싶고, 없던 일로 하고 싶어도 과거의 사건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 과거는 덮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과거, 그 어느 시점에 머물러 고립된 나의 내면을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재해석해야 한다. 과거는 실패가 아니다. 은혜의 증거물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해석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분의 통찰이 우리를 해석의 주체가 되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지구상 그 어떤 존재들과 비교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완전한 피조물은 사람뿐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능력을 주셨고, 창조할 지혜를 심으셨다. 복음의 능력으로 고개를 들자. 가계에 흐르는 모든 저주와 상처의 고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힘을 잃는다. 십자가는 단지 미래의 구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옭아매는 모든 결박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진리를 붙들고 거룩한 여정을 시작하길 권면한다.

먼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야 한다.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 여행을 떠나보자. 나의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더 나아가 부모님과 조부모님과의 관계도 살펴보자.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모님은 어떤 성품이셨으며, 부모님의 결혼 과정, 부부생활은 어떠했는가? 유독 생각나는 어린 시절 장면이 있는가? 그때의 감정, 냄새, 온도, 감각, 기억나는 말, 부모님의 표정이나 뉘앙스도 느껴보자. 부모님이 곁에 계신다면 이 여행에 초대해도 좋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주변의 전문가나 신뢰할 만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 내가 받은 상처가 무엇이며, 그것이 지금 나의 양육에서 어떤 얼굴(과잉 보상, 반작용, 반복)로 나타나고 있는가? 더는 회피하거나 합리화하지 말자. 이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나를 중심으로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생각하기'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 성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자기연민적 태도가 중요하다.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치유가 시작된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롬 12:2).

이 말씀은 어둠을 빛으로 가져오기, 즉 '무의식의 의식화' 작업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제공해 준다. 여기서 '이 세대'는 나에게 익숙하고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세상의 방식, 곧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사고와 행동 패턴으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을 단순히 본받지 않는 차원을 넘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 '나를 중심으로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생각하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내 생각과 마음의 패턴을 인식하고(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것을 새롭게 하는(변화) 의식적인 노력은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제 우리는 상처 입은 아무개의 아들, 딸이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됐습니다"(고후 5:17).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가계에 흐르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매일 선포하며 묵상하자.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사 43:18).

이 구절은 과거의 상처를 파헤치는 작업이 과거에 매몰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임을 상기시켜 준다. 첫 번째 단계인 '과거 여행'은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자칫 자기 연민이나 과거에 대한 원망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 〈이사야〉 말씀은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새 일'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떠나보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정과 나의 삶에 행하실 '새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다.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과 연결되며, 과거의 피해자에서 새로운 미래의 창조자로 나아가는 여정에 강력한 희망과 동기를 부여한다.

좋은 부모가 되려는 우리의 결심은 연약해서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장 완전한 상담자이자 양육의 지혜 그 자체이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울함에 잠식될 때, 자책과 자괴감에 휩싸일 때, 조급함에 아이를 다그치고 싶을 때, 잠시 멈춰 서서 기도하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것이다(롬 8:26).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 자라며 상처와 결핍을 경험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그리고 이제 선택하자. 매 순간 옛 패턴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자. 언제나 이 결정의 주체는 '나'이며, 이 결정을 실천할 사람 역시 '나'이다. 상담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자녀 양육 역시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감정, 사고, 행동들을 의식 수준으로 꺼내는 것이다. 나의 과거를 인식할 수 있다면 대대손손 묵혀 있던 견고한 부정적 대물림도 내 대에서 끊어낼 수 있다.

'부모 됨'이란 결국 스스로 성장하는 여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화해하고, 부모를 이해하게 되며, 자녀를 향한 새로운 사랑의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분과 함께 말이다.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9월 3~4일 본문 '롬 1:29~32, 롬 2:9~11'

1.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① 불의, 탐욕, 악독 ② 다툼, 시기, 질투
③ 믿음, 소망, 사랑 ④ 살인, 악행, 사기

2. 의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자가 행한 일을 보고 심판하세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셨나요? 모두 골라 보세요.

① 영광 ② 존귀 ③ 환난 ④ 평강

3.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롬 2:9)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1550호 정답자**

조민지(인천 파워웨이브), 김예랑(양재 유년3부), 이우찬(부천 파워웨이브), 윤하루(인천 유치부), 최서온(강동 차세대), 송태주(양재 유년3부)

차세대 여름 아웃리치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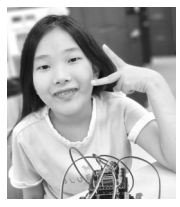
늘푸른교회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지난 7월 충청북도 음성군 늘푸른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웃리치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설렘과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교회에 모여 출석체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출발했습니다.

늘푸른교회에 도착해서 마을 어르신들께 드릴 음료수, 사탕, 젤리 등 간식을 포장했습니다. 대전온누리교회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식사를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포장한 간식을 나눠 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셨고, 저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 활동 중에서 특히 어르신들 앞에서 찬양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들과 우리 모두 함께 손뼉 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낯선 곳이어서 앞에 서는 게 조금 창피했지만, 그 마을에는 어린이가 별로 없어서 저와 친구들의 찬양을 어르신들이 즐거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교회에서 찬양했던 것과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쁘게 찬양했던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이번 음성 아웃리치에 신나고 즐겁고 뜻깊게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아웃리치도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벌써 듭니다.



박예린 학생
(대전 꿈땅 소년부)

“왜 결혼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몸’과 ‘결혼’의 의미



문지호 집사
(한강공동체,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현대 사회는 전례 없는 결혼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륜지대사인 결혼이 이처럼 가벼이 다뤄졌던 적은 없다. 결혼은 적게 하고 이혼율은 높아졌다.

유명인의 이혼마저도 더는 관심거리에 미치지 못한다. 소위 ‘돌싱’이라는 이혼남들이 모여 결혼을 희화화하는 TV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다. 수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해 밝히는 이혼 가정의 실태는 이 시대의 결혼이 얼마나 정결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다 보니 결혼보다 동거를 택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2020년 기준 미혼남성 37.7%, 미혼 여성 29.9%가 혼전 동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제도도 결혼과 성을 가볍게 보기 시작했다. 2015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간통죄가 폐지됐다. 2019년에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책임 없는 성관계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에는 동성 커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권리를 인정받으며 동성혼 합법화의 틈을 엿보고 있다. 현재 11쌍의 동성 커플이 동성혼 허용 소송에 나서며 남녀의 연합이라는 결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비혼 공동체, 비혼 출산, 동성결혼 및 생활 동반자법 등의 제도가 주장되며 소년소녀들이 꿈꾸는 결혼의 개념 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현재 국회에는 동성 커플도 혼인 관계로 인정하자는 ‘혼인평등법’, 결혼하지 않아도 사실혼에 준하는 권리를 부여하자는 ‘생활동반자법’, 비혼 여성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법, ‘혼인과 혈연 기반의 가족’을 삭제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전통 결혼 질서를 흔드는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이 통과되면 결혼 개념에 혼동이 생기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자녀들의 복지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다. 관련 법들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어서 각종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또 무너진 가정의 아동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가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결혼을 가르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된다. 동성혼 허용에는 상업적 대리모, 정자와 난자 매매, 이에 따른 잔여 수정란의 폐기 등 비윤리적 문제도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물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숙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고 했기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성평등은 남녀 성별이 아닌 성소수자(LGBTQ) 모두를 의미하기에 동성혼 인정이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어린 학생들이 결혼의 신성한 개념을 익히기 전에 LGBTQ 성교육을 받으며 왜곡된 결혼관을 갖게 될 위험성이 커졌다.

결혼과 가족의 붕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권리를 추구한다며 결혼을 가벼이 여긴 결과는 다음세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이혼이나 동성혼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아동은 빈곤 위험이 4배 이상 높고, 범죄나 약물 남용, 심리적 문제, 학업성취, 미래 소득에서 모두 불이익을 겪는다. 어머니가 없는 경우는 어린 시절 실제적 생존의 위협을 맞게 되고, 영양 결핍과 신체 성장 부진 및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잘못된 결혼으로 이뤄진 가정은 아동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무엇보다 아동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을 어렵게 한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남성인 아빠’와 ‘여성인 엄마’가 안정감을 주는 양육을 베풀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 이는 우울증과 자살, 행동 문제, 미성년 임신, 교육 수준 저하, 무력감과 같은 장기적인 사회적 폐해로 이어진다.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살펴야만 이 시대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한 ‘몸’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동물과 달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뿐 아니라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고전 6:19). 몸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셨기에 그분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요 1:14). 몸은 단지 영을 담는 껍데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통로다. 또한 몸을 통해 사랑이 실천되기에 하나님 사랑의 목적을 드러내는 실체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랑을 베푸셨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몸을 죽음에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롬 5:5). 그리고 삼위일체로 연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사람이 서로 헌신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연합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결혼이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그분의 사랑을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남자와 여자라는 두 성(性)을 지으시고, ‘결혼’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헌신하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부부의 성관계는 이에 대한 실체다. 서로에게 헌신하고 내어줌으로 연합하고, 사랑의 열매로 또 하나의 생명이 탄생한다. 성관계는 육체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연합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죄가 오기 전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창 2:25). 욕망 관계가 아닌 완전히 내어주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랑을 누렸기 때문이다. 죄가 없는 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였다. 사람은 죄를 짓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신뢰가 무너지고 수치심을 느끼며 몸을 가렸다(창 3:7).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훼손된 것이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몸을 대속하기 위해 오셨다. 부끄럼 없었던 태초의 몸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결혼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자. 결혼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자.”

결혼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성경을 〈창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서(창 1:28) 예수님의 결혼 잔치로 마무리하셨다(계 19:9). 하나님은 성도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하는 비밀을(엡 5:32) 남녀의 결혼을 통해 알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은 그분이 성도를 지극히 사랑함같이 결혼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를 위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엡 2:1). 죽었던 결혼을 살리시고 태초의 결혼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명하셨다(엡 5:25). 아내에게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다(엡 5:22).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지만, 사랑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안에서는 자유롭게 따를 수 있는 명령이다.

바울은 예수님이 회복시킨 부부 관계를 ‘피차 복종’하는 사랑이라고 명했다(엡 5:21). 목숨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남편의 사랑에 아내가 자유로운 복종으로 응하는 것이다. 부부의 성관계 역시 이기적 욕망은 모두 버리고 상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이다. 그렇기에 부부의 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예식이 될 수 있다.

성경적 결혼은 단순한 ‘계약’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언약(Covenant)’이다. 계약은 통상 기간이 정해져 있고 조건적이며 본인의 유익을 위해 체결한다. 그래서 결혼을 계약으로 인지하면 깨질 위험이 크다.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 죄를 지으면 결혼이 종결되는데, 인간은 본질이 죄인이지 않은가? 이기심이 발동하고 상대가 계약을 어겼다는 억울함이 밀려오면 연합은 깨져버린다. 세상 말대로 결혼 지옥이 시작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은 계약이 아닌 언약이다. 언약은 상대측이 규정을 어길지라도 충실한 사람 쪽에서 어기지 않을 협약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은 언약이다. 백성들이 지키든 말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번복 불가한 것이다. 결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므로 영속적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아내를 창조해 남편에게 ‘이끌어 오셔서’(창 2:22) 짝지어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마 19:6). 화가 난다고 이혼이란 단어를 쉽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결혼의 언약은 배타적이다. 세상의 어떤 인간관계도 부부 사이의 헌신을 방해하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몸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성적 부도덕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구원의 비밀을 설파한 바울은 후반부에서 구원받은 빛의 자녀들이 첫 번째 행할 일이 ‘음행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엡 5:3). 사탄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끊는 가장 손쉬운 고리가 음행임을 알고 있다. 부부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사탄의 음행을 물리칠 수 있다. 결혼의 언약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결혼을 꿈꾸는 이들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선물이다. ‘연합’의 의미도 ‘결혼’의 단어도 오염된 시대에 참된 결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딛 3:5)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지 않은 결혼은 합법적 성생활을 허용한 관계일 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결혼 지옥’이 아닌 ‘결혼 천국’을 꿈꾼다면 타락한 내 몸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피차 복종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다. 배우자를 볼 때마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나님이 그의 몸에 거하시고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짝지어준 나의 뼈요, 나의 살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연약한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사탄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결혼을 흔드는 세상의 시도는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결혼의 비밀을 받은 성도들이 지금 취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엡 6:13). 전신 갑주를 입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며 사탄을 대적하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결혼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자. 결혼의 신실함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의 구원을 알게 하자.

서초B공동체
캄보디아

열대지방 선교와 모기 방제

캄보디아 아웃리치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살라띠가에 이어 내가 두 번째로 참여한 해외사역이었다.

캄보디아는 무덥고 습한 날씨 탓에 소리 없이 다가와 피를 빠는 모기가 많다. 그로 인해 주민들이 뎅기열과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현실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 아웃리치에서는 기존 행사와 더불어 방역사역을 펼치며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예방하는 데 큰 의미를 뒀다. 열대지방 선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모기 방제 활동을 사역 프로그램에 포함해서 실천한 뜻깊은 사례였다.

방역사역은 장로님과 팀장님의 권유로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에 약간의 두려움과 막연함이 앞섰다. '현지에 장비와 약제 등이 제대로 도착할까?', '현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게 선교 아웃리치에 적합할까?' 등 여러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서초B공동체의 사전 준비와 성원 덕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지난 5월, 후원 물품 일부와 연막기 2대, 연무기 1대, 각종 살충제와 기피제를 배편으로 미리 현지에 보냈다. 모든 장비가 안전하게 도착했고, 이를 통해 현지 선교센터 주변과 프놈펜싼농학교, 프놈펜예술학교에서 무사히 방역사역을 할 수 있었다. 자매님들이 바자회를 준비하는 동안 형제님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방역 활동에 전념했다. 흰 방역복을 입고 연막기를 들고 그 뜨거운 햇볕 아래를 누비며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섬겼다. 은혜의 현장이었다. 특히 이한규 목사님의 헌신이 기억에 남는다. 목사님은 단순히 격려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모기 유충 방제 약제를 들고 프놈펜예술학교 이곳저곳을 다니며 모기가 서식할 만한 곳에 일일이 약을 뿌리셨다. 누군가 농담처럼 "목사님이야말로 최고의 방역 전문가"라고 했는데, 실제로 목사님의 철저한 수고 덕분에 모기 밀도가 확실히 억제될 거라 확신했다. 영적 전투 현장에서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듯한 감동이 있었다.


서초B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준비한 바자회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는 프놈펜싼농학교 학생들.

김사야 선교사님이 섬기는 M센터(사야센터)를 방문해 바자회, 거리전도, 방역 활동, 현지 목회자 Blessing도 했다. 바자회에서는 주민들과 물품을 나누며 교제했고, 거리전도에서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심었다. 특히 김사야 선교사님의 간증이 우리를 더욱 숙연하게 했다. 선교사님의 큰딸이 3년 전 모기 감염병인 뎅기열로 세상을 떠났고, 선교사님 본인도 두 차례 뎅기열에 걸려 감각인지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 실제 아열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이 모기 감염병으로 중단되는 사례가 20~3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지역 교회와 공동체의 선교 동력을 약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렇기에 방역과 보건교육은 단순한 보조 활동이 아니라 선교 사역의 본질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이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 현지 목사님들을 위한 세족식은 서초B공동체만의 은혜로운 전통이 되었다.

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는 30여 년 모기와 곤충을 연구한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감염병 취약국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과학적 연구와 방역 활동이 선교의 길을 열어주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 김사야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현지 사역과 방역 소독 사역을 통해 캄보디아 선교가 주님 안에서 더욱 은혜롭게 발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권형욱 집사
(서초B공동체)

강남D공동체
잠비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한다!

18시간 비행, 10분마다 변경되는 아디스아바바의 환승 게이트, 간신히 도착한 루사카 공항에서 부당하게 느껴지는 4시간 관세 절차, 출장으로 탄자니아에서 합류하는 팀원이 당한 이중관세 소식은 출발 전 맞았던 링거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시켰다. '아 잠비아 아웃리치는 이동이 절반이구나' 라는 소회가 일었다.

다음 날 새벽, 라마나욧교회로 이동 중 마주한 비포장 흙길과 무채색의 벽, 슬레이트 지붕은 70년대 우리나라를 떠오르게 했다.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던 간절함과 무엇이라도 돕고 싶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다.

라마나욧교회에 도착해 현지 전도사님과 짧은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곧바로 선물 포장을 시작했다. 80여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앞치마와 십자가 목걸이, 복음 팔찌를 건네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을 전할 수 있었다.

성인예배는 교인 대면식, 선물 전달식, 김창호 목사님의 설교, 아웃리치팀을 위한 환영 공연과 현지식 점심 식사 등 약 네 시간 동안 이어졌다. 한 시간 넘게 통성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세 시간 넘는 예배 시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뜨겁게 호흡하는 성도들, 진심이 느껴지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환영 인사. 그 어느 것도 뜨겁지 않은 게 없었다.

라마나욧의 학교 사역에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잠비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학년별 7개 반을 돌며 400여 학생들에게 복음 팔찌와 드로잉 교보재를 활용해 영어로 설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현지 교사가 현지어로 동시통역하며 함께 했고, 아웃리치팀 12명이 하나 되었다. '사랑을 전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는 순리대로 이번에도 사랑받은 것은 우리였다. 집중하는 큰 눈망울과 작은 몸에서 기쁨이 흘러넘치는 흥겨움, 작은 팔찌 하나, 축구공 하나에도 웃음이 그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며 우리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다.


함께 만든 복음팔찌를 차고 즐거워 하는 라마나욧 학교 아이들과 강남D공동체 아웃리치팀.

다음 사역은 라마나욧 학교에서 약 50분 거리에 있는 제2의 라마나욧 학교 예정지인 사일리 마을 방문이었다. 사일리 마을로 가는 길은 오지의 오프로드와 같아 4륜구동 차량이 아니면 어려웠다. 창문과 지붕 없이 벽체만 있는 집들도 듬성듬성 있었다. 제2의 라마나욧 학교 예정지는 밤을 새워 지켜도 설치해 둔 태양광 패널과 전기장치들을 도난당하기 일쑤인 너무나도 황폐한 곳에 있었다. 그럼에도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 빈들에 마른 풀이 무성한 그곳에도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셨고, 영혼을 위해 얼굴을 비추셨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소망이 커지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사역은 한국과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하는 이야기가 애타는 40여 분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모시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었다. 된장만 두 종지를 드시고 행복해하시는 선교사님, 식사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 참기름과 커피믹스 선물을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워하는 분들까지. 힘든 환경에서도 관계를 놓지 않았던 이찬양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노력과 온누리교회의 선교에 대한 열정 덕분에 한국인이 100명도 되지 않는 잠비아에서 몇 년 사이 최대 인원이 모여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었다. 할렐루야!

잠비아, 그곳은 지금껏 삶에서 축적되어 있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곳이었다. 7박 9일 여정 동안 오로지 감사만 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한다는 게 아웃리치를 다녀와 내린 결론이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한다.


강민성 성도
(강남D공동체)

여호수아청년부
케냐

평생 잊지 못할 축복

나는 늘 재정적인 이유로 아웃리치 지역을 동남아로만 제한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목사님의 한마디가 마음 깊이 꽂혔다.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 평생 갈 일이 없을 거로 생각했던 케냐 땅을 마음에 품었고,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과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그 길을 떠났다.

사막으로 향하는 여정은 길고 험했다. 나이로비에 도착해서도 최북단까지 이어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힘든 여정이 계속 이어졌다. 그런데도 아웃리치 팀원 중 단 한 사람도 아프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이동하는 차 안은 찬양과 나눔이 가득했다.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다큐멘터리에서만 보던 부족민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마마들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으며 교제를 나눴다. 나중에 들어보니 마마들은 우리가 찍어준 폴라로이드 사진을 손에 꼭 쥐고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며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들은 평생 거울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데도 여전히 많은 것이 없다고 불평하던 내 모습을 돌아봤다.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는 문명의 혜택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울리면서 한편으로는 묘한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음에도 누군가는 문명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생 자신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며 사는 현실



여호수아청년부 아웃리치팀과 비눗방울놀이를 하며 행복해 하는 케냐 아이들.

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긴 시간 동안 그 생각이 계속됐다. 그러다 두 개의 답이 마음에 들어왔다. 가장 먼저 들려온 답은 '모든 문명을 누리는 것이 곧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답은 저녁 모임 때 이서진 목사님이 전해주신 '먼저 받은 자들이 나누면 된다'는 말씀이었다.

사역이 끝나고 사막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크심이 마음 깊이 다가왔고, 서울에서 안고 있던 고민과 걱정들이 한없이 작게만 느껴졌다.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했던 '광야'라는 단어가 차로 오랜 시간을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길과 현실을 직접 겪으며 내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았다.

블레싱 시간에 선교사님의 자녀인 하윤이와 예윤이에게 "언니, 오빠들이 와서 좋아?"라고 물어보았다. 아이들은 "언니, 오빠들이 와서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좋아요."라고 답했다. 10살, 11살밖에 안 된 아이들의 이 대답이 아웃리치 기간 내내 내 마음을 울렸다.

선교사님은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無名)'속의 선교사님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아는 분이었다. 복음 전할 생각으로 가득했고, 강도의 위협이 가득한 곳이지만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살고 계셨다. 일주일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아웃리치팀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최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 또한 아웃리치의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았다.

나는 2016년부터 매해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곳은 처음이었다. 자연스럽게 내년에는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물품을 가져가야 할지를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니 처음 케냐라는 나라를 품게 하신 순간부터 다녀온 지금까지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팀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음을 깨달았다.

이 여정을 돌아보며 결심했다. 앞으로 어떠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꺼이 걸어가겠다고 말이다. 하나님이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보여주신 작은 손길과 기쁨은 평생 잊지 못할 축복이다.



전아라 자매
(여호수아청년부)

서대문공동체
스리랑카

"복음은 사랑과 순종으로 증거된다!"

지난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서대문공동체가 스리랑카 땅을 밟았다. 6박 8일 여정이었는데,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스리랑카 '감파하'와 '코타갈라'에서 사역하면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다.

감파하에서의 사역은 직업훈련학교(TIMI) 한국어학과(KLVC) 학생들과 함께한 10주년 행사였다. 전통 놀이, K-푸드, 한복 체험 등 한국문화를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다. 그 학생들은 불교와 힌두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데, 그들에게 한국문화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며, 은혜를 위한 섭리였다. 스리랑카 한세일, 유은선 선교사님과 현지인 선교사로 허입된 JOY 선교사님과 만남, 직업훈련학교 스태프들과의 연합은 우리에게도 큰 격려였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매 순간 감사의 눈물이 흘렀다. 아웃리치를 처음 경험하는 선교사님들은 스리랑카에 와서 가장 가슴 벅찬 위로를 선물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10주년 행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셨다.

코타갈라 차밭 마을로 이동했다. 현지 교회 성도들과 연합예배를 드리고, 후원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현지 교회 방문, 기



서대문공동체 아웃리치팀이 스리랑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해 교제하고 있다.

도회, 목회자 가정과 성도 가정 심방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빗물 가득한 진흙 바닥을 걷고, 거머리가 다리를 물어도 그 땅에 하나님의 온기와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특히 차밭에서 일하는 가정과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해 간 학용품과 의류 등 각종 선물은 우리에겐 너무 흔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선물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이들을 보면서 깊은 도전과 책임감을 느꼈다. 3개 언어 (타밀어, 싱할라어, 영어) 동시통역을 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드린 예배도 기억에 남는다. 언어는 달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로 어우러졌다. 그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큰 은혜로 다가왔다. 팀원들 간의 사랑과 섬김, 기도와 격려는 우리를 더욱 끈끈한 공동체로 만들었다.

'콜롬보'에서 팀 전체가 아웃리치 보고를 하고, 스리랑카 한인연합교회 주일예배를 드리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밀도 높은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그 땅을 섬기러 잠깐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셨다. 우리가 밟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한 영혼만이라도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다. 모든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다. 우리를 스리랑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사역의 열매를 맺는 원동력이었음을 고백한다. 문화와 언어, 환경은 달라도 사랑은 통했고, 순종의 걸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다. '복음은 사랑과 순종으로 증거된다'는 진리를 품고 나아가면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온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모든 이들을 단단하게 묶어주신 황신연 목사님과 모든 일정을 기쁨과 미소로 섬겨주신 선교사님, 현지 동역자들, 함께 기도해 주신 서대문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할 것이다.



이종민 집사
(서대문공동체)

NGO 더멋진세상-대한예수장로회총회,

의성 산불 피해 주택 재건 10억 후원 MOU 체결

NGO 더멋진세상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가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주택재건에 힘을 모은다. 대한예수장로회총회가 의성 산불 피해 주택 재건을 위해 NGO 더멋진세상에 10억 원을 기부했고, 지난 8월 28일(목) 경북 의성군 단촌면 하화리 마을회관에서 양 기관의 대표와 경안노회장 이정우 목사, 보나콤과 함께 '산불 및 재난 피해 주택 재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산불 피해 주민의 신축 주택 건립이 본격 추진되고, 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NGO, 교계,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재난 회복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지역 교회와 교계, NGO가 힘을 모아 산불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선우 목사(대한예수장로총회 사회봉사부장)는 "이웃의 아픔에 함께 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신속한 재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동진 목사(보나콤)는 "이번 협약이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희망의 집을 선물하는 첫걸음인 만큼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NGO 더멋진세상과 대한예수장로회총회가 '산불 피해 주택 재건 MOU'를 체결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일대일 양육자반 심화과정 온라인 특강 '메이크업6'

9월 14, 21일 오후 8시 온라인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심화과정 온라인 특강 '메이크업6'가 9월 14일(일)과 21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열린다. 9월 14일 '순종하는 삶', 21일 '사역하는 삶'을 주제로 강미향 목사가 강의한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을 수강 또는 수료한 성도가 대상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7월부터 개편된 일대일제자양육 새 교재 내용을 다룬다. 참가신청은 문자메시지로 하면 된다.

문의: 010-3929-6793

/ 김현준 기자

9월 화요성령집회 'Direction'

9월 화요성령집회 주제는 'Direction'이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9월 화요성령집회에서는 9일 최성민 목사 '더 깊이 애통하라'(고후 7:8~11), 16일 최성민 목사 '더 크게 부르짖으라'(렘 33:1~13), 23일 신경훈 목사 '더 높이 날아오르라'(사 40:27~31), 30일 이서진 목사 '더 온전히 내어드리라'(눅 24:25~35)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 심예은 기자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가을, 시를 노래하다'

10월 13일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전도사역본부가 주최하는 전도콘서트 '강석우와 함께하는 가곡의 밤 '가을, 시를 노래하다'(이하 가을, 시를 노래하다)가 10월 13일(월) 오후 6시 5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가을, 시를 노래하다'에서는 탤런트 강석우 집사가 사회를 보고,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이 공연한다. 강석우 집사가 직접 쓴 시(詩)와 작곡한 곡도 공개한다. 콘서트 참석을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래 QR코드 또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좌석당 2만 원이다. 구매한 티켓은 콘서트 당일 접수데스크(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로비)에서 수령하면 된다. 좌석은 콘서트 당일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사랑부와 SNS청년부 역통합예배

장애인, 청년, 교사 등 138명 참석

사랑부와 SNS청년부가 지난 8월 24일(일) 오전 9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역통합예배'를 드렸다. 역통합예배는 장애인 청년들이 비장애인 청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의 장(場)이다. 사랑부 발달장애인 청년 41명, SNS청년부 소속 청년 31명, 교사 66명이 참석했다.

김세용 팀장(사랑부)은 "발달장애인 에배공동체인 사랑부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깊이 자리 잡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역통합예배를 기획했다"면서 "발달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비장애인들과 하나 됨을 누리는 역통합예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Love Sonata 시가 러브소나타 기 도 제 목

9월 7일(일) 일본 시가의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구원받도록
9월 8일(월) 시가 러브소나타 집회 장소가 채워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9월 9일(화) 시가현의 약 80개 교회가 하나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며, 실행위원회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도록.
9월 10일(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모든 영혼의 심령이 녹도록.
9월 11일(목)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증거하도록.
9월 12일(금) 봉사자들과 사역자가 한 마음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9월 13일(토) 미니 러브소나타도 전도의 문을 열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도록.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두란노아버지학교 창립 30주년

'파더블레싱(father blessing)2025'

두란노아버지학교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파더블레싱(father blessing)2025'가 지난 8월 30일(토) 오전 11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막을 올랐다. 이재훈 위임목사, 최성완 이사장(두란노아버지학교), 김성묵 고문(두란노아버지학교) 등 리더십과 전 세계 두란노아버지학교 수료자와 봉사자, 그 가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전진국 대표(CGN), 홍남식 청장(전서울시교정청장), 이상은 대표(라잇나우미디어 한국) 등 외부 인사들도 3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파더블레싱2025'은 '가족과 함께 아버지학교 체험하기', 사명선언문 낭독, 이재훈 위임목사 말씀선포, 리마인드 순결서약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채경석 안수집사(남양주한마음교회)는 "두란노아버지학교가 지난 30년을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박지혜 기자

그리스도인을 위한 변증 가이드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변증〉
김기호 | 생명의말씀사
| 44,000원

동성 결혼, 지옥 교리, 유신 진화론… 기독교를 향한 질문들이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은 단순한 권면으로 신앙을 갖게 하거나 지킬 수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니다.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알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의 저자 김기호 교수는 복음주의 신앙을 변호하는 기독교 변증가다.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변증〉은 신앙과 과학, 철학과 사회적 쟁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기되는 질문에 명쾌한 논리로 접근하면서 기독교의 핵심 이슈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풀어냈다.

〈한 권으로 읽는 기독교 변증〉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고 싶은 성도들, 복음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전하고 싶은 목회자에게 영적 무기이자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기독교 핵심 이슈의 실전 변증 가이드가 바로 이 책이다.

온누리교회 〈권사회 소개 E-book〉 발간

서빙고 권사회 '예배중보기도 사역' 동영상도 제작

온누리교회 권사회에서 〈권사회 소개 E-book〉을 발간했다. 온누리교회 권사회는 2009년 공식 발족 이후 장례사역, 병원사역, 중보기도 등 돌봄과 위로, 기도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권사회 소개 E-book〉에는 온누리교회 권사회의 역사와 사역, 비전 등이 담겼다.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에서는 '예배중보기도 사역' 동영상도 제작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권사회는 공동체별로 담당 기간을 정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영상도 하단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일본 선교단체 'hi-b.a' 온누리교회 방문

서빙고 차세대, 양재 여호수아청년부 연합예배

지난 24일(일) 'The Way' 한일청년연합집회에 참가한 일본 선교단체 'hi-b.a'가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차세대, 양재온누리교회 여호수아청년부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미즈나시 후미카 대표(hi-b.a 선교단체)는 "The Way 한일청년연합집회에서 맺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일본의 크리스천 청년 리더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서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타카기 고토하 형제(hi-b.a 선교단체)는 "일본 교회도 온누리교회처럼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와이무슬림 수료 간증



그날을 꿈꾸며

/ 이미경 성도(경기A공동체)

내가 이슬람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 예맨 난민으로 온 '파이로즈' 라는 무슬림 엄마 때문이었다. 내가 와이무슬림 과정을 신청한 이유는 타지키스탄이라는 이슬람 국가로 떠나는 아웃리치 준비 때문이었는데, 강의를 듣는 내내 무슬림 친구 '파이로즈' 가 생각났다. 강의 중에 '선교는 돕는 것이 아니라 태도'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 나는 무슬림 친구에게 어떤 태도였을까? 돕는 것이 선교라는 마음으로 혹시 갑의 태도가 아니었을까? '선교는 사랑' 이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주었을까? 오랜 기간 교제하고 만났는데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흔들림 없는 그녀를 향해 나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을까? '변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끝까지 사랑하는 게 선교' 라고 했는데, 나는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자가 아니었을까? 스스로 여러 질문을 던지며 나의 교만과 연약함을 돌아봤다.

"기독교 옷을 입고 무슬림의 생각과 무슬림 같은 율법적 삶을 살면서 절대 무슬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후벼팠다. 내가 무슬림을 변화시키려 하기 전에 내가 다시 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확신을 내 안에 다시 가득 채우기 위해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로 나아가야겠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도 역시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시선과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리라. 그들을 다시 친구 삼으리라.

올해 여름 아웃리치에서는 중앙아시아 변방의 이슬람 땅을 밟았다. 국토의 93%가 산악지대인 땅, 중앙아시아 최빈국, 국민 98%가 무슬림인 땅. 이슬람과 독재라는 두꺼운 요새 안에 갇혀 있어서 관심 밖에 있던 작은 나라 타지키스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녀들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이다. 빈곤과 통제로 어둡고 낮은 곳에 처해 있을지라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어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이기도 하다. 세계의 지붕이라는 파미르고원이 있는 타지키스탄이 하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게 되는 그날을 꿈꾼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무슬림 선교의 가능성을 품고 나아간다.

성령수련회 참가자 간증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가신다!

/ 강윤형 성도(OCC공동체)

251기 순장학교 프로그램 일환으로 성령수련회에 참석했다. 워낙 일이 바빠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오랜만에 긴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으로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Acts29 비전빌리지는 그 공간만으로도 은혜였다. 비가 온 뒤라 더욱 신선해진 공기에 온통 녹음으로 뒤덮인 공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기분이었다. "하나님 감사해요"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왔다.

하용조 목사님 기념관과 묘소도 처음 방문했다. 하용조 목사님을 기리며 온누리교회의 오늘을 만드신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숨을 건 목회가 결국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느꼈다.

성령수련회 첫 시간, 황신연 목사님의 강의가 그동안 성령에 관해 가지고 있던 불확실한 개념을 분명해지게 했다. 황 목사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결국 성령님과의 인격적 교제"라고 하셨다. 그 의미는 이러하다. 성령님 안에는 '말씀(지), 감정(정), 의지(의)' 가 있는데, 나의 '지·정·의' 와 부딪히면서 점차 나의 자아는 죽고, 성령님의 지·정·의가 내 삶을 끌고 가신다는 것이다. 즉,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가신다는 뜻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서도 이어지는 '성령님의 사역', '성령에 대한 약속과 성취'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 궁금증으로 남아 있던 방언에 대한 바른 관점을 알 수 있었다. 방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억압하지 말고 자유하게 방언기도를 하면서 더욱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주고 가셨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며 기도해야겠다.

이번 성령수련회에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재확인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특히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위한 통로로 나를 쓰시고자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성령수련회를 계기로 새벽기도 시간을 늘려서 더욱 성령 충만함을 소망할 것이다.

온누리호스피스 수료 간증



삶의 끝자락을 함께하는 사람들

/ 이종희 성도(온누리호스피스)

어머니가 집에서 오랫동안 요양하다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신 지 한 해가 지났다. 매주 금요일 어머니를 만나는 게 숙제라는 마음이 들었다. 인생 끝자락에 오신 어머니를 돌아보는데 온누리호스피스가 생각났다.

온누리호스피스 첫 수업이었다. 테이블에 올려진 꽃 사이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예수님이 삶 마지막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봐 주었다"(마 25:36)이다. 숙제 같던 어머니의 간호가 온누리호스피스를 통과하며 선물이 되었다.

잔인한 4월 어느 날, 실습 때문에 온누리요양원을 찾았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요양원에 들어서자마자 사라지며 울컥했다. 그 안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멋있었다. 인생 끝자락에 있지만, 그 존재의 초연함이 있었다. 온누리호스피스에서 어르신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반갑게 맞아 주시는 미소, 서로 손잡고 체온을 나누는 따뜻함, 어르신들의 따뜻한 눈빛 속에 아름다운 영혼이 있다. 어르신이 먼저 안아주시며 "반갑다. 고맙다" 하시더니 나의 뺨에 기대셨다. 어르신의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느 수필집에서 읽은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가 닮았음을 알게 했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삶임을 깨달았다. 삶의 희로애락을 지나오신 어르신들의 초연함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존경심이 들었다. '잘 사는 법은 곧, 잘 죽는 법' 이라는 명제가 더욱 선명해졌다.

온누리호스피스 강의와 실습으로 마음의 균형, 정서적 통합, 삶의 의미, 회복을 깨달았다. 하루하루를 나로 살아내기가 참 어려웠던 날들이 모여 괜찮은 날이 된다. 그래서 삶을 소중하게 느끼고 남은 시간을 진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로 내 삶의 끝자락을 함께하는 사람들, 가족, 온누리호스피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온누리요양원을 나오면서 어르신들이 다시 생각났다. 그 어르신들에게 "폭삭 속았수다(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수료예배: 9월 21일(주일) 서빙고 3부 예배
장소: 서빙고 본당 우측 성가대 앞
대상자: 25년 6월 1일~8월 31일 사이에 완료 보고된 성도.

동반자	양육자
서빙고	
■ 가정사역	
최성찬	김현수
이지혜	최고야
최우진	윤석진
■ 강서	
서은혜	김보민
고현근	김영훈
김세창	장현민
■ 강촌	
박현식	김옥명
황주희	백재화
정다정	이숙용
문용일	이광섭
■ 고양은평	
심재희	정효숙
최광일	조정구
유병윤	안영철
김영호	이윤학
김미나	강신애
이혜상	김승연
박태환	노치형
전보연	맹윤덕
육미라	김미진
신예식	함혜정
■ 관악금천	
김순희	한대인
김정연	이은주
■ 남대문희망	
서종원	남정진
■ 노원	
방보경	김정필
진현주	류선희
■ 동대문중랑	
하정우	김행자
권혜령	송선희
이현정	김정희
■ 동작	
신효정	장영주
최순옥	김성미
김은영	김연희
구재운	고윤상
■ 마포	
김정미	김영미
장수현	김유수
박지인	이영경
권은진	김서현
전수영	이은홍
박재용	이효림
강인선	이명선
전미라	구현정
■ 서대문	
허지윤	최진옥
조진경	김용희
박효선	임경화
정해윤	박미숙
■ 서빙고	
정현미	박희숙
■ 성동광진	
염혜정	양민영
전지은	양지혜
조성원	경국현
■ 성북	
장유진	최보영
김수현	이은경
홍정범	예민수
김상진	최홍관
■ 신용산	
박희도	이제헌
조석환	박상훈
변우용	백현준
신소라	오영은
문제균	최석호
■ 양천	
이태현	김성석
임창숙	성미정
고수련	고혜화
신동원	김경우
주연진	김은정
■ 여의도	
이경민	홍정희
김미경	임명숙
남영례	박은화
황미연	엄승현
김혜원	황현선
유지훈	이종훈
■ 영등포구로	
김은희	서은영
홍유표	백용기
신혜영	김영경
신효섭	이지훈
이한우	성우용
김강훈	천명국
고미영	서은영
정미숙	김영희
■ 요셉	
최명희	김미숙
■ 용산	
남신호	구 헌
유현경	최경희
고선영	정현주
이윤아	이지현
■ 이수	
김민정	이승연
■ 이촌	
이선화	남희영
김상천	하창우
김윤덕	이유진
박세은	이미학
■ 일산파주	
유숙자	김진순
■ 중종로	
정희정	김지은
김영임	강은주
권혁준	정두식
■ 찬양사역	
이병진	원용연
한효은	최승아
■ 한강	
전지혜	천보경
이건희	정의석
박건호	김진국
한미옥	박성숙
민지혜	김지은
방숭영	심영훈
■ 공동체 없음	
이예지	이교행
김소영	박경희
강하나	나주현
문민서	김관숙
■ OCC	
유승규	홍준표
김지현	이주현
장세영	윤미옥
송정빈	황규택
■ S브릿지	
박아름	김주영
김정아	신후남
김동호	서동환
황 빈	신은주
홍은혜	이용아
권은진	이문정
장지원	신주현
배태경	강인경
서산	
오정민	최재훈
주성경	정희경
대학청년	
■ CHPlus	
김세진	이소영
■ Pole2	
최유리	김선미
■ SNS	
김채은	이임배
신재희	김요셉
이한우	류지훈
오예원	박성혜
백주현	홍준영
제예나	김희수
전하영	박규현
최민진	정유정
김수정	박시현
정수환	박진우
김채원	조윤세
하보희	제혜영
류가영	유희수
김동섭	이홍민
권순국	김진환
정다운	고영숙
조하은	이경화
홍성원	김광진
박예진	이주선
이지윤	김민정
고한결	이우성
김현우	이축복
황태웅	박종우
박하늘	박해령
윤산희	김의경
박채경	이현정
오희령	안태숙
임세경	조성근
김서현	강주연
김초롱	박세진
강혜진	오혜란
민성주	권정혜
권은주	이세경
정서영	전 홍
박지혜	오소희
■ W	
이준수	정용모
손예은	정제영
이찬호	허륜석
오하은	송기현
양우린	유영윤
이혜준	박인숙
권은혜	신윤희
박현민	김병헌
■ 하늘	
신동경	이종한
이 휘	김학래
임규원	예상욱
박지호	구자형
황혜림	김정아
김예진	장애리
손민정	박은정
한지원	박소연
김동원	양환기
김자영	양정실
장희경	윤복희
김도형	이승환
최서정	정지인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서빙고	이강자	**장로반**	이영롱	**유현목 목사반**	박진석
	이선하	김래섭	이재욱		배영미
강은수 목사반	이윤정	김미은	임나현	강승태	서정식
	이지현	김상훈	전용범	강창구	선여심
강영주	이혜정	김영신	전종배	고상필	송희정
김귀정	정제니퍼	김은진	조유현	권경미	심상진
김용순	정혜윤	김주연	조재형	김송미	이남이
김은자	정호진	김지영	주 권	김용진	이병일
김은희	조태연	김효종	진선희	김정미	이상봉
모지혜	최혜진	남지현	최예승	김지나	이정희
박지성	한상희	리쇼메이	최은미	김지현	이진현
오미란	한율미	박성덕	최인광	김 현	이혜영
유용선		이상철	한화정	맹성숙	이화진
유진희	**강은철**	이성배	황진영	문미란	이희정
				하성희 목사반	
					권은정
					노용진
					류승호
					이우석
					장재희
					전원아
					조해수
					정혜영
					차지연
					홍지은

장로칼럼

아오모리 설경



이철 장로
(OCC공동체)

지난달 두란노서원에서 개최한 〈생명의 삶〉 표지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내가 촬영한 사진이 〈생명의 삶〉 표지 사진이 될 줄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평소 사진 찍기를 참 좋아한다. 대학 시절 사진반에 들어가서 암실 작업을 하며 사진이 내 일생의 취미가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가족사진을 찍다가 정년퇴직이 가까워져 오는 즈음부터는 여행의 어느 순간 내가 셔터를 누르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물이나 풍경을 찍기 시작했다. 로마, 스페인, 시칠리아와 몰타, 남쪽 프랑스, 산토리니와 그리스 본토를 다녀 보니 여행지 곳곳에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었다. 발자취들 앞에서 바울을 그리면서 여러 번 셔터를 눌렀다. 후에 주위의 권유에 따라 사진들을 모아 포토에세이 〈La Strada〉도 출간했다.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발자취를 사진으로 보여주는 전도 목적이 숨은 책이다.

요즘은 장거리 여행보다는 근거리 여행을 더 자주 하게 된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인 '아오모리 설경'은 겨울 단체여행으로 일본에 다녀올 때 촬영한 것이다. 계곡에서 가이드가 잠깐 설명하고 움직이는 순간 서둘러 단 한 컷을 찍었던 사진이다. 그 찰나의 사진이 내게 이렇게 큰 기쁨과 영광을 안겨줄 줄 누가 알았겠는가.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생명의 삶〉 표지 사진을 공모하니 한번 응모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어딜 감히 내가!'라는 겸손도 잠시, 한번 응모해 볼까 하는 용기가 생겼다. 소식을 들으니 무려 2,700여 점의 사진이 응모되었다고 한다. 그중에서 내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니.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다. 내 작품은 설



경 사진이니 겨울철 〈생명의 삶〉 표지 사진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다. 그때 독자들이 어느 성경 구절을 가지고 큐티를 하실지 알 수 없다. 겨울날 차분하게 성경 본문을 묵상하실 때 아오모리 설경이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조성모의 노래 '가시나무'의 가사다. 내 속엔 헛된 바램, 어쩔 수 없는 어둠, 이길 수 없는 슬픔이 마치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고 노래한다. 가시나무새는 평생 가시가 가득한 나무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그 나무를 발견하면 가시에 찔려 죽으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사랑과 헌신을 뜻하는 새다. 가시가 돋힌 가시나무에는 찾아오는 가시나무새가 쉴 곳이 없다. 가시나무는 인간이며, 가시나무새는 예수님이다. 우리 안에는 내 고집, 내 자아가 너무나 많다. 너무도 빽빽해서 예수님이 들어와 쉴 공간이 없다. 내 안에는 여전히 가시나무가 무성하지만, 이번 사진 속 겨울나무는 포근히 눈을 품고 있다. 그처럼 우리 마음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평안과 위안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권사칼럼

농부로 변신한 선교사



이순희 권사
(성북공동체)

얼마 전 박일구, 신인순 선교사님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온누리교회 선교사로 파송 받아 평생을 열방의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시던 그분들이 은퇴하고 고향 땅에서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박일구 선교사님은 건축과 전기 시설 정비의 달인이셨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으로 28년 동안 11개국을 돌아다니며 교회와 학교, 보건소와 집을 지으셨다. 지난해 〈온누리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함께 웃고 우는 삶이 행복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나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보았다.

박일구 선교사님은 70세가 되신 지금도 선교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제2의 선교지 '전라남도 영암 삼호읍'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 그곳에는 스리랑카, 네팔,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다고 한다. 선교사님 부부는 그들의 모국어로 다가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벌써 수십 명을 전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고 한다.

은퇴 이후 선교사님의 사역은 자비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을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바로 무화과 농사다. 평생 건축만 해오셨던 분이지만, 낯선 농사일을 열심히 배우며 정성껏 무화과를 재배하고 계신다. 며칠 전 선교사님이 첫 수확한 무화과를 보내주셨는데, 마치 딸 시집 보내듯 곱게 포장되어 있었다. 무화과 한 알, 한 알에 선교사님의 땀과 기도가 담겨 있어서 그런지 입안 가득 달콤하고 감사한 맛이 퍼졌다. '무화과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라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맛있는 무화과를 업체에 납품하면 헐값에 수매된다고 한다. 그 소식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직접 이 무화과를 사드리면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더 오래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공동체에 그 소식을 알렸더니 감사하게도 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선교사님께 무화과를 구매했다. 무화과를 맛본 분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공동체 식구들의 평가를 보니 이 소식을 온누리교회 더 많은 성도님께도 전해서 맛있는 무화과를 맛보게 해드리고 싶어졌다. 무화과를 먹는 동시에 은퇴 이후에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응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 무화과가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땀과 눈물로 맺은 복음의 열매라 믿는다. 선교사님께 무화과를 사드리는 일은 단순한 과일 구매가 아니라 선교의 또 다른 방법 아닐까 싶다.

부디 많은 성도님이 박일구 선교사님의 무화과를 구매해주시기를 부탁한다. 그 응원이 선교사님께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박일구 선교사님의 그 미소를 우리가 함께 지켜드렸으면 좋겠다.

무화과 1.2kg 두 박스 2만5천 원
(택배비 포함)
계좌번호: 312-0224-1078-91
농협은행 박일구
문의: 010-9281-4557(박일구 선교사)

신앙에세이

낮아짐의 용기, 겸손의 가치



김은혜 목사
(양재 차세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익어가는 벼의 무게만큼 깊어지는 삶의 태도는 아마도 '겸손'일 것이다. 세상도 교회도 겸손을 귀한 덕목이라 외치지만, 막상 그 의미를 '내 삶'으로 풀어내려 하면 선뜻 말이 나오지 않는다. 주변에서 '진짜 겸손한 사람'을 찾기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로 겸손을 '겸손한 척'으로 오해한다. 차세대에서 청소년들을 섬기며 학생들과 겸손에 관해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 오해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밤을 새워 열심히 공부하고도 막상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는 "아니야, 나 정말 못했어"라며 손사래를 치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면 "에이, 아니야"라며 고개를 돌린다. 그것이 학생들이 그동안 보고 느꼈던 겸손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이다. 있는 사실도 마치 아닌 것처럼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칭찬을 거부하며 속으로는 '역시 난 오늘도 겸손했어'라며 스스로를 토닥이지만, 진실로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진심 없는 겸손은 자존감을 갉아먹고, 결국 나도, 세상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한다. 어떤 이는 차라리 겸손을 포기한 채 '내가 제일 중요해'라며 우뚝 서기도 한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며 은밀히 청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제자 열 명이 분개했다. 그들이 화난 이유는 간단하다. 야고보와 요한만 높은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연기가 아니라 다른 이를 높이는 선택이었다. 겸손은 자기비하가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유대 사람들이 외출 뒤에 반드시 하는 것 중 하나가 발을 씻는 것이다. 발이 드러나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유대 사람들의 발은 언제나 흙먼지로 쉽게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외출 후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일은 늘 노예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낮아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다. 발을 씻긴다고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섬김을 받는다고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진리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가치를 일깨웠고, 그들도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라고 초대하셨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르지 않다. 진짜 겸손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확신할 때 가능하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타인을 섬길 수 있고, 흉내가 아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일 수 있다. 그런 삶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향기가 된다.

우리는 공동체와 사역팀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양한 지역과 국가로 나아가기도 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면서도 제자들이 그러했듯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어느 순간 자리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섬김을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벼가 익으면서 고개를 숙이듯, 우리 역시 사랑 안에서 익어갈 때 자연스레 낮아질 수 있다. 낮아짐은 패배가 아니라 용기이며, 섬김은 자기비하가 아니라 자유다. 오늘도 그 자유 안에서 누군가를 높이고, 겸손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세상에 심자.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풍성한 수확이 되리라 믿는다.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변대섭 목사 (031) 515-3521~4(대표)
  12249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20-14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노희태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양재경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제주**
  노규석 목사 (064) 794-8090
  6352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화역사로 601
- **안산 온누리M센터**
  김태완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최영민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최영민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AMA 형제교회

- **춘천 새순교회**
  임용성 목사 (033) 264-0291
  강원 춘천시 영서로 2000

■AMA 협력교회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 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재정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문봉주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 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
  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변대섭 신동식 김승수
노희태 양재경 도육환 노규석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래위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윤식
김은혜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광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치형
렵문홍 문영재 박근법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철웅
박태영 박형준 배순양 배행삼
백성우 서수민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대종
신원석 신현민 송동주 송재호
안사무엘 양성민 양진법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유진아
유현목 윤미리아 윤이삭 윤현규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상욱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준호
이진기 이찬우 이호준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선범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동윤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연상 정현석 정회성 제치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은광
조현수 진선미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요시키
하성희 하형훈 한화수 한충희
해롤드김 허원희 황문규 황신연

◈전도사(전임)
길한솔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주용 안대진 유성하 유현우
이승호 이형목 임동현 장지훈
주하늘 최강호 홍근영 황유일

◈부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안환균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동규 김병철
김은하 김주영 김진미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문봉주 박씨마 박지윤 백승현
백인선 비 컬 서경남 서영철
싱머매놀 양현수 유알렉세이 에릭 마이
클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승헌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진숙 임혜선 정요한
정진모 제인량 존골레즈 최정현
허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동현 강명주 강하람 강현구
구길모 권영찬 권예람 권평화
권혁성 김가희 김경배 김기태
김동우 김명초 김미리 김민수
김민희 김빛나 김승희 김소망
김예찬 김유미 김지석 김지선
김태현 김하성 김하은 김현정
김현주 김홍미 김화목 나가노
마사토 남 혜 네우빠네 피터
드미트리 문수진 미즈바울 박 권
박미애 박상현 박 성 박성후
박시온 박요한 박용민 박유진
박의력 박종일 박찬미 방예린
방진아 배윤주 삶은멸치 서아연
서은규 서혜진 손위결 송영호
신나래 신호철 심은섭 안류택
염경덕 오성광 오성민 오예원
오진우 오혜광 옥준우 우수진
우승희 유석현 유요한 유지은
유 찬 윤길문 윤조현 윤종연
윤지현 이건준 이나단 이미진
이민규 이반석 이선민 이선혜
이소라 이승은 이승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은찬
이재용 이진수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택민 이형준 임경미
임노완 장건우 장성열 장영주
전미연 전준호 정경일 정기은
정상원 정연영 정영현 정은영
정주은 정찬중 제영민 조기연
조민희 조슬기 조경찬 조운식
조준기 지석구 지수정 주승환
차선일 최규종 최민정 최성진
최 은 최혜정 하예림 한용태
허영은 홍세나 홍슬기 황서하

◈사역장로
강경국 강기석 강신익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두진
김명종 김명철 김명훈 김병옥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장렬 김재욱
김재일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준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겸 김형식 김형중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총실 문현구
박 공 박명률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A
박영태B 박용국 박우형 박일구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박형민
박흥균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흥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학철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동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재수
양춘경 엄태진 오성연 오성훈
우광방 우승구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각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법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증
이길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백용 이상기 이상덕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열
이헌규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임광순 장 광 장규환 장선철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전한백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상기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운오
정재탁 정재현 정진호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대희 조성근
조진호 조청구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격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함일성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홍해남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시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은철 강종도 강창재 강태욱
고길범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태일 곽희준 구자엽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언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상균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각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영환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정민 김정훈 김준규 김준구
김준영 김지학 김지현 김진수
김지홍 김창석 김창원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석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윤장 남정진 노기홍 노하수
노경한 노기홍 노하수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문정식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명균 박명권 박성규 박영한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 현 박현규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종신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낙원
성주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래
손태용 송기선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재영 신철우
신한승 심길섭 심천보 심효무
심희돈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충식 양현열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승탁 오인식
용내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일 윤석우 윤수민
이경호 이정훈 이광순 이규천
이남식 이동욱 이병국 이봉의
이삼형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상혁 이석일 이성신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원장
이은일 이인용 이자형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찬주 이풍우 이학일
이해달 이홍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채납 임현태
임효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문석 장수진 장영열
전영수 정광열 정순식 정연식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육 정운섭 정원만
정응화 정현호 정희동 조경식
조병현 조성수 조성환 주성대
주재량 진종구 차춘근 최민철
최봉림 최석민 최성완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최현규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서린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문봉주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탁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재정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김기홍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장인
김정운 김진우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식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안성진 양진법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노우에 마키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천
정동윤 조수정 최성석 최철홍
한승재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반주자
강성현 강예은 고은찬 김가아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슬기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보화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은영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양건식 오수정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영찬 유재경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영훈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장영심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서린 조영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전도사
강요안나 강진영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백만기 서영찬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다니엘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천 정선진 정은숙
조 단 조성현 진혜선 최윤호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하여진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승집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노유철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송태민 신솔문 심상일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최경주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탑 송희경
서대원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이현영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소천

8/30(토) 양천 유인승 성도 모친상 고 김순자
8/31(일) 서초B 방혜영 집사 시모상 고 장준자
고양은평 최선희 권사 모친상, 이광욱 집사 빙모상
고 채성옥
9/1(월) 양지관리팀 이광호 과장 부친상 고 이정구
9/2(화) 신용산 정명숙 권사 모친상, 이용대 장로 빙모상 고 황을수
9/3(수) 경기A 박준형 성도 부친상 고 박준상
이수 조정미 집사 부친상 고 조영채
김포 이경구 집사 모친상 고 김수신
9/4(목) 이촌 한광훈 집사 모친상, 김은경 집사 시모상 고 김경돌
서대문 김수지 성도 모친상 고 김득례
찬양사역 이진원 성도 부친상, 이문희 집사 시부상 고 이지걸
노원 김태수 집사 부친상, 류선희 집사 시부상 고 김성택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박지혜, 심예은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팀장(02-3215-3413)

온누리요양센터 이미용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치매, 중풍 등 입소 어르신(외부 미용실 이용 어려운 와상 어르신)
내용: 이미용 봉사 (개인, 단체 가능)
자격: 이미용 자격증 소지자
일시: 평일 09:30~11:30 또는 13:30~16:00
장소: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온누리교회 부근)
신청 및 문의: 배일환 사회복지사(070-4489-68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기간: 2025년 12월까지
모집: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누구나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청결 봉사
신청: VMS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합창단 모집
기간: 2025년 11월까지
모집: 세대 교류 및 소통을 희망하는 청장년 세대(청년, 외국인)
내용: 합창 연습, 세대 간 교류 및 소통
신청: 유선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시립서울역쪽방상담소 우리동네구강관리플러스센터 봉사자 모집
내용: 치과 의료진 어시스트 및 안내
자격: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위생학과 학생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14시~17시) / 요일 및 시간 협의
문의: 전현미 치과위생사(070-4153-4547)

재정

온누리교회앱의 헌금 메뉴에서 모바일헌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하여 사용하세요.
온누리교회
헌금온라인 안내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홈페이지 신청, 전화: (02-793-2997/010-4215-3675
상담 시간: 화~금(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 상담: 개인, 부부, 아동청소년,가족,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PCIT(부모아동상호작용훈련), 영어 상담, 예약 필수
심리검사: 성격, 기질, 진로 및 학습유형 등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광고

OSOM36기 장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2026년 2월 23일~6월12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자격: 장기간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자로서 선교훈련 받기 원하는 자
접수: Acts29비전빌리지 홈페이지 신청서
서류: 홈페이지 안내(공지사항)참고
마감: 2026년 1월 9일
문의: 031-331-8188

TP44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2026년 1월 5일~1월30일
장소: Acts29비전빌리지
자격: 선교지에서 1~2년간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
접수: Acts29비전빌리지 홈페이지 신청서
서류: 홈페이지 안내(공지사항)참고
문의: 031-331-8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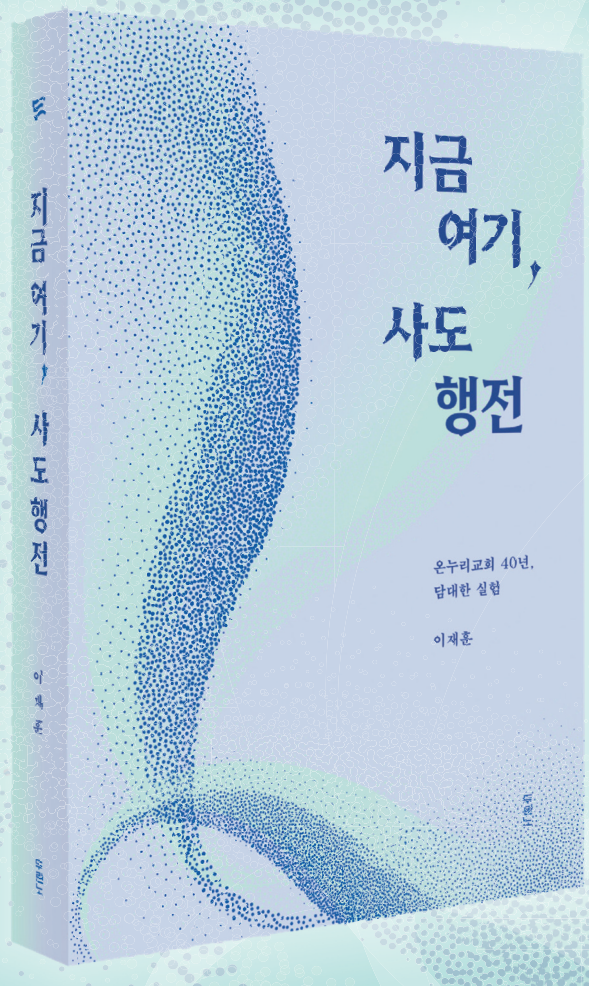
인천온누리교회 행정간사 모집
모집: 행정업무
대상: 여성(20~30대)
우대: 인근 거주자, 컴퓨터 활용능력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교회양식)
접수: barnaby1091@gmail.com
문의: 신상민(010-8469-1091)

온누리교회 40년,
담대한 실험

지금 여기, 사도 행전

이재훈 목사 최신간

온누리교회의 핵심적인 사역 원리 수록



사도행전적 교회는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하는 성도들을 통해 세워진다!

온누리교회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에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꿈을 이어주기 위한
영적 기념비로 편찬되었다. 14개 사역본부 170여 명의
발간위원을 포함해 총 3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여
각자의 사역 경험을 담아낸 이 책은,
온누리교회 40년 역사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다.

ACTS 29 NOW!

도서 바로 구매하기
서빙고 복스토어

두란노